

# 올해도 익산시민 위한 공연·전시 '풍성'

익산예술의전당, 다양한 연극·콘서트·클래식·브랜드 상설 공연·기획전시 등 마련

익산시가 올해도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인다. 익산예술의전당은 예술성·대중성·공공성을 고려해 연극, 콘서트, 클래식, 국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 콘텐트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연극, 콘서트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 기획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상반기 대중음악부터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했다.

지난 1월 전석 매진을 기록한 '이승철 레트로 콘서트'를 시작으로, 3월에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연극 '작은 아씨들'과 청년 관객을 위한 콘서트 시리즈 '사운드포레스트익산-스탠딩에그'가 잇따라 관객을 맞이한다.

이외 4월 동물원, 박화기, 한동준이 함께 하는 '김광석과 친구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

5월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공연에 나선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자로 나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녁 산책길에 즐기는 야외 공연 '산책음감'은 초여름 밤의 정취를 느끼게 할 예정이다.

6월은 한국출판문화상을 받은 안병달 작가의 동명 그래픽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수박수'



익산예술의전당은 올해도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인다.

영장'이 열린다. 이외에도 장애인·고령자 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공연 등 추가되는 하반기 공연들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미술관 기획전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시는 연중 다양한 미술관 기획전시를 통해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응원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한다.

3월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 32인 초대전인 '익산미술상생전'을 시작으로 4월 '전북도립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을 개최한다. 5월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곽종민 모필장'

전(展)'을 통해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이어 6월에는 '이동근 작가 초대전' 등 시민과 지역 문화예술 작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아카데미, 전문인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시립예술단의 익산시 고유 브랜드 공연

익산시립예술단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공연을 제작·기획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연간 4회에 걸친 '브랜드 상설 공연'으로 익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이끌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계기를 마련한다.

지난해 11월 처음 선보인 '서쪽남자 & 동쪽여자'는 5월 가정의 달과 11월 수확절을 위한 특별공연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연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서동 설화를 기반으로 역사적인 가치와 노래와 춤, 연희 등 예술적인 역량을 접목한 복합공연이다.

기획공연, 기획전시, 예술단 공연의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공연 별 회원 할인과 티켓 오픈 안내 문자도 받을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중요로운 일상을 위해 올해도 품격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준비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트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7명 청년작가가 전하는 현재진행 메시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야외조각전 II '7ing:칠링' 5월 21일까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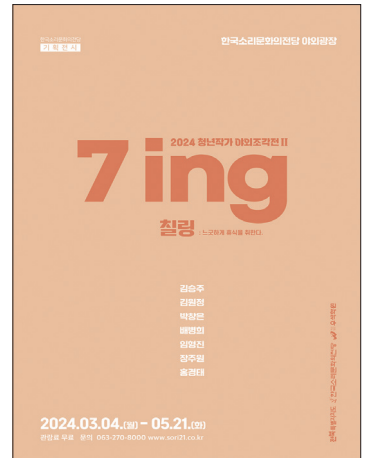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2024년 첫 번째 기획전시로 마련한 청년작가 야외조각전 II '7ing:칠링'이 3월 4일부터 5월 21일까지 전당 야외광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더 단단해진 내용과 작품들로 다시 찾아와 올해 두 번째 이야기로 구성됐다.

특히 청년세대인 김승주, 김원정, 박창은, 배병희, 임형진, 장주원, 홍경대 7명의 작가가 참여한 '7ing:칠링'전은 넓은 전시공간이 필요한 설치작품 특성상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작품들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칠링이란 '느긋하게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다.

공연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063-270-800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문화재단, '탄소예술기획전' 참여작가 모집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4 탄소예술기획전 참여작가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4회차를 맞은 탄소예술기획전은 탄소예술 장르 개척과 탄소문화산업으로의 가능성 모색을 토대로 2021년부터 총 33

명의 탄소예술작가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파리 '국제첨단소재박람회 JEC World' 및 서울 '탄소산업 국제 전시·컨퍼런스 Carbon Korea'에 참여하는 등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0명의 작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작년대비 증액된 창작지

원금 4백만원이 지급된다. 선정된 작가는 11월 19일부터 1월 5일까지 48일간(예정) 탄소예술기획전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탄소 소재에 관심이 있는 도내 시각예술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8~12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창작기획팀(063-212-880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한국소리문화의전당-한국이벤트협회 전북지회, 협약 체결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서현석)은 지난달 29일 (사)한국이벤트협회 전북지회(지회장 한상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예술의 필요성을 공감, 기관 상호간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문화예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서현석 대표와 한국이벤트협회 한상준 지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신뢰와 성실로 건전한 문화예술을 증진시키는데 공동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간 발전을 도모하며, 문화예술 향유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서현석 대표는 "문화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비리고 지향하는 한 몫을 담당하고 싶다"며 "전당은 앞으로도 도민들



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6월 초여름 싱그러운 에너지 담아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가 6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의 개최를 앞둔 가운데 이를 알리는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초록빛 자연, 보랏빛 낭만으로 가득한 6월의 영화 축제 '무주산골영화제'가 2024년 열두 번째 영화 소풍길을 알리는 공식 포스터를 공개해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이번 공식 포스터는 매년 '무주산골영화제'가 개최되는 계절인 6월 초여름의 에너지 넘치고 경쾌한 무드가 담겨,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빼앗는다. 특히 판화 스타일로 표현한 독특한 그림체가 인상적인 가운데, 푸르른 하늘과 청량한 숲을 배경으로 빨강, 노랑, 초록 등 통통 튀는 색채의 향연은 싱그러운 자연을 연상케 한다. 여기에 만개한 꽃들 사이로 축제를 즐기는 인물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영화 축제 '무주산골영화제'의 즐거운 현장 분위기를 담아내 벌써부터 관객들의 발길을 끌어당긴다.

올해 공식 포스터는 그림책 아티스트인 '이현' 작가의 아트웍으로 탄생되었다. 2018년 한국 안테레상 출판부문 대상 수상을 비롯해 2020년 월드 일러스트 어워드 'FINALIST ARTIST'로 선정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그림책 '내 토끼'를 발간하며 원화 전시 및 북토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연의 모습을 관조적으로 그려낸 유니크한 스타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이현 작가는 이번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 작업에 대해 "무척 설레는 시간이었다"며 "낭만 가득한 숲에서 주욱같은 영화와 함께 할 관객의 시간을 상상했다. 싱그러운 햇



살과 청량한 숲의 향기를 머금은 '무주산골영화제'에서 관객 모두가 행복한 소풍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작업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5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동장으로 손꼽히는 무주둔나무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각각의 재미와 감동 가득한 영화들과 함께 공연, 전시, 토크, 캠페인 등 무주의 자연 속에서 특별한 문화 이벤트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초여름을 대표하는 영화 축제 무주산골영화제의 모습을 표현한 공식 포스터를 공개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린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유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